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ormation of Human Relationship in School: Focusing on the Movie**

**Kim, DoKi**(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JeHyu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oon, YoungJi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Yu, MiRa**(Hanbul Elementary School)

---

---

< ABSTRACT >

---

---

The purpose of this exploratory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of human relationship focusing on relation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n school. In this paper, we analyze various literature and previous researches to understand what human - human relationship is in essence, and discuss the process of human relationship formation in school. In addition, we explain the human relationship in the school through the movie "Teacher Kim Bong Doo".

Human beings are sociable beings with an instinct to crave and desire to break relationship in their birth, and mutual relations are inevitable. Human relations are interactions with others who are presumed to be interdependent, and the root cause of the human relations problem is derived from the desire for Charity, so it should aim for a Charity relationship that is a authentic human relationship. A Charity relationship can be explained by a concern in the external part and an concern toward the inner center. The framework that describes the formation process is the Concern, Communication, Comprehension, and Consideration, and Charity. And it was named as 5C.

As a result of applying the 5C to the teacher 'Kim Bong - do', the phase of the relationship of Concern-Communication-Comprehension-Consideration-Charity appeared in the temporal flow of the movie. This can be interpreted as showing that 5C can function as an appropriate frame to form human relationship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fulfilling the process of Concern, Communication, Comprehension, and Consideration, and Charity described in the 5C to form and improve better human relationships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all human relations.

**Key Words:** human, school, human relationship, forming relationship, 5C, concern, communication, comprehension, consideration, charity

---

---

## 학교 내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시론적 고찰: 영화를 중심으로

김도기 (한국교원대학교)1)  
김제현 (한국교원대학교)2)  
문영진 (한국교원대학교)  
유미라 (한별초등학교)

---

### < 요약 >

---

본 연구는 학교 내 교사-학생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관계의 형성에 대한 시론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여러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본질적으로 인간과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학교 내 인간관계 형성 과정을 시론적으로 논하였다. 또한, 학교 내 인간관계의 모습을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를 매개로 하여 설명하였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관계의 단절을 염려하고 갈망하는 본능을 지닌 사회적 존재로서 상호 간의 관계가 필연적인 존재이다. 인간관계는 상호 의존성이 전제된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서, 인간관계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랑의 욕구에서 비롯되므로 진정한 인간관계인 사랑하는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사랑하는 관계는 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에서 내면의 중심부를 향한 관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랑하는 관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틀로서 관심(Concern), 소통(Communication), 이해(Comprehension), 배려(Consideration), 사랑(Charity)으로 구분·제시하였으며, 이를 5C로 명명하였다.

5C를 ‘선생 김봉두’에 적용하여 학교 내 인간관계의 양상을 살펴 본 결과, 관심-소통-이해-배려-사랑의 단계가 영화의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 이는 5C가 인간관계를 형성시켜 나가는데 적절한 틀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5C에서 설명하는 관심-소통-이해-배려-사랑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개선하는 것은 학교조직 내 인간관계를 떠나 모든 인간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인간, 학교, 인간관계, 인간관계 형성, 5C, 관심, 소통, 이해, 배려, 사랑

---

1) 제1저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stryper5004@hanmail.net)

논문투고: 2018. 09. 07 / 심사일자: 2018. 09. 21 / 게재확정일자: 2018. 09. 26

## I. 서론

사무직이든 영업직이든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대체로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저 사람만 없으면 편하게 일할 수 있을 텐데.” 또는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와 같이, 직장생활에서 원만치 못한 인간관계로 갈등을 빚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삶에 있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학교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초등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유상영, 2018.09.16.)이나 교권 침해의 증가(성유진, 2017.12.18.)<sup>1)</sup>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까닭은 학교구성원 간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학교 내 인간관계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김민조, 2012; 신철균, 2007; 장지웅, 2013; 정경섭, 2004)에서도 교장-교사, 교사-교사, 교사-학생 등 다양한 학교 조직 내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사 측면에서 직무 만족의 저하로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저하, 사기 및 헌신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김호정, 2009; 서종원, 2003; 이완재, 1992), 학생 측면에서는 개인의 정체성과 건전한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의 저하, 스트레스의 증대뿐 아니라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김홍, 2016; 이태희, 2002; 주형철, 2006; Gazda, 1972).

인간관계의 양상은 다차원적인 특징을 지닌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처음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다자 간의 관계로 확대된다. 학교조직 내의 구성원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다층적 인간관계 구조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허병기(2003)는 학교조직 내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감에 있어 인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인간화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하였다. 진실한 관계는 인간관계의 지향점이므로 곧 바람직한 인간관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는 교육조직이라는 점에서 진실한 관계로서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인간관계의 지향점,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람직한 관계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인간관계의 형성 단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인 5C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교 내 인간관계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5C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인간관계의 사례는 ‘선생 김봉두’의 장면들을 추출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학교조직 내 인간관계를 보다

1) 한국교육 상담 사례 2006년 179건, 2011년 287건, 2016년 572건으로 매년 증가

이상적인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인간의 이해

인간관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 즉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상국(1996)은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보느냐를 6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Nietzsche가 말한 ‘인간은 자기를 극복해야 할 존재이다.’와 같이, 인간은 자동조절이 되지 않는 존재이므로 그때그때마다 자기반성을 통해서 자기 제어를 하는 윤리적 존재,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활의 의미를 찾는 사회적 존재, 사상 및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징형식인 언어를 사용하는 상징적 존재, 놀이문화 및 예술을 즐기는 유희적 존재, 타인과 서로 주고받는 수수적 관계에서의 거래적 존재,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역할적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다양한 존재로서 설명되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본능을 지닌 사회적 존재이다.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 관계의 단절을 염려하는 공포와 외로움으로 울음을 터트리는 것은 관계를 갈망하는 본능의 표현이다. 이처럼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개인을 둘러싼 인간관계, 즉 가족 관계 속에 있게 되며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그는 확대된 사회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인간은 확대된 사회관계 속에서 삶든 좋든 몇 개의 조직에 속하게 된다. 인간은 가족이라는 집단 속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성장하고,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즉, 인간은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어도 끊임없이 타인이나 사회와의 관계 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말이다. 이렇기에 인간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동료들에 대한 이해와 통찰은 물론 동료 구성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신중식, 노종희, 2003, p. 302). 이것은 인간의 삶의 본래적 특징으로서 상호 의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들로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성이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이며 필연적인 사실이다.

### 2. 인간관계의 이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존재이자 본질적으로 인간 상호 간의 관계성이 전제되는 존재이다. 인간(人間)이라는 말은 본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뜻하는 말로서, 인간이라는 말 자체에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다. 즉,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관계를 함축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인간관계를 만족스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때 한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하게 된다. 인간은 인간관계의 양과 질에 따라 독특한 자아를 형성·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격발달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 인간관계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인간관계는 점, 선, 면을 활용하여 입체적 관계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 살아가면서 웃음, 울음 등의 표현을 통해 부자 관계, 형제자매 관계, 조손 관계 등을 하나하나 형성해나간다. 하나의 점으로 태어난 인간은 이러한 개별적 관계를 맺으면서 선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선은 사회생활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점차 확장되어 간다. 친구 관계, 학우 관계, 선후배 관계, 이성 관계 등이 새로운 인간관계의 양상이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다자 간의 관계로 확대되고, 확대된 다자 간의 관계는 면을 형성하게 된다.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로 발전된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동료 관계, 전우 관계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면들은 나를 중심으로 다층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즉 나를 중심으로 입체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입체망의 크기와 조밀함은 내가 만든 인간관계의 크기와 밀도로 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넓은 의미로는 대인관계이고, 좁은 의미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심리적 대응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더욱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신중식, 노종희, 2003, p. 303).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사랑으로의 소통을 무시한 채 외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표피적인 접근은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간과하게 되므로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외부적으로는 문제들의 양상이 각기 다르게 보이지만 내면의 심층부로 들어가 보면 결국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랑의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종합하자면, 인간관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과정으로서 상대에 대한 긍정적 입장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신중식, 노종희, 2003, pp. 303-304)이며, 만약에 상대를 긍정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하며 진정한 인간관계는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존재이며, 사랑하는 인간관계는 상호 간의 결합, 즉 사랑이 내포된 관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타인과의 사랑하는 인간관계를 통해 인간은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고, 결국 그 관계로부터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 3. 학교조직 내 인간관계

학교조직 내에 존재하는 인간관계는 다층적인 면을 형성하고 있다. 학교장과 교사, 교사와 교사, 교사와 행정직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부모 등 다양한 조합의 인간관계가 존재하며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학교조직의 본질은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생각해볼 때, 교사와 학생과의 인간관계가 가장 주되고 핵심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인간으로서 인격 형성에 있어 결정적 시기인 학생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더욱 중요성이 부각된다(이병진,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조직 내 인간관계를 교사와 학생 간 관계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교사와 학생은 우연적이며 강제적인 요소로 인간관계가 시작되며, 대개 일 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이러한 점은 상호 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일단 형성된 관계를 서로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한 유지, 발전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짐을 시사한다. 교사와 학생이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인간관계의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조직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조직은 학생들이 개별 교과목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존재와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인간으로서 가치롭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Buber, 1954). 따라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관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맺어져야 하며, 이는 곧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이해와 배려 등의 원리가 적용되는 진정한 관계여야 한다(김진한, 2000; 이형득, 1986; 허병기, 2003; Buber, 1954). 이러한 진정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때, 학교조직 구성원들은 행복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교수와 학습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지은림, 김성숙, 2004).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팽배하고 급격한 정보과학기술의 발달은 점차 인간소외를 불러왔으며, 학교조직 내 인간관계마저 피상적으로 바꾸고 있다. 교사는 학생을 잠재력을 가진 고유한 인간이라기보다는 처리해야 할 과업의 하나로 대하며, 학생은 교사에 대한 존경보다는 서비스를 행하는 자로 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은 선생은 있어도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며, 학생은 있어도 배우고자 하는 열의는 없다고 표현되기도 한다(윤정일, 1999). 중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마저도 교사가 의미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인식한다는 연구결과(지은림, 김성숙, 2004)도 이러한 현재의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사 간 진정한 인간관계의 형성은 교육의 현장에서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간 학생과 교사 간 인간관

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교사와 학생 간 인간관계가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홍, 2016; 이태희, 2002; 정혜경, 2008; 주형철, 2006)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와 학생 간 진정한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 간 인간관계가 공적 제도의 틀 하에서 우연적이거나 일정기간 지속되며 인간존재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바, 이들 간 인간관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해 가는지 살펴보는 것은 진정한 인간관계로 나아가는 데 많은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 Ⅲ. 인간관계의 분석틀: 5C

인간관계를 맺고 형성해나가는 데 유일한 정답은 없다. 인간 및 인간관계는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어느 한 가지로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인간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면의 중심부를 향한 관심, 사랑하는 관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 ‘사랑’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의 모습을 5C로 설명하고자 한다. 5C는 인간관계의 본질, 즉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관심(Concern), 소통(Communication), 이해(Comprehension), 배려(Consideration), 사랑(Charity)이 그것이다. 이 장에서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5C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관심(Concern)

관심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를 뜻한다. 한자로 쓰면 關心이다.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빗장을 풀 준비를 한다는 뜻이다. 관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깃들어있다. 단순히 상대방에 대해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호감(好感)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관심이란 단어가 마음의 빗장을 연다는 뜻에서 상대방에게 나를 보여준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심은 “상대방에게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는 것, 또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보여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관심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관심이 인간관계의 첫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는 관심이 첫 단계라 확언할 수는 없으나, 인간관계가 사

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전제된 관심이 인간관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심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조직으로 들어와 생각해 보면, 새학기가 시작되고 교사와 학생은 한 교실에서 만나게 된다.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이때 관심은 언급했듯이 “교사 또는 학생에게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는 것, 또는 교사 또는 학생에게 내 마음을 보여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이며, 아동기로부터 청소년의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이미숙, 2001)는 점에서 교사와 학생 상호 간의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교사와 교사 또는 교사와 관리자 등 학교 내 다양한 관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며, 관심은 인간관계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 2. 소통(Communication)

소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남에게 잘 통함”이다. 한자로는 疏通이다. 이 말의 의미는 “트여서 잘 통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의 소통은 양자 간의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상대방에게 잘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소통은 언어와 비언어를 포함하는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이다.

모르는 남(또는 서먹서먹한 관계의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먼저 상대에게 관심을 갖거나 그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다. 관심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고 그의 호감을 이끌어 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대화(주로 직접 만나서 하는 대화를 의미하지만 여기에는 카톡, 문자 등의 소통도 포함된다)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소통이다.

관심 이후 단계로서 소통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심리적 관심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과정이다. 그 역도 성립한다. 아무리 좋아하고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관심이 알아채지 못한다면 양자 간의 관계는 진전되기 어렵다.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점 때문이다. 즉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 소통이 매개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소통은 상대방에게 나의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이 나의 관심을 알아차리게 하고, 그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학교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의 정의대로 “교사와 학생(또는 교사-교사, 교사-교장 등)이 서로 트여서 잘 통하는 것”을 그들 간의 소통이라 볼 수 있다. 이 말은 양자가 단순히 언어 또는 비언어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 메시지 안의 의미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즉 인간관계의 시작인 관심을 서로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상호

간 이해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 3. 이해(Comprehension)

이해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사물의 본질과 내용 따위를 분별하거나 해석함”이며, 두 번째 의미는 “남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잘 헤아려 너그럽게 받아들임”이다. 즉, 이해는 관심과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관심사, 취미, 성격, 기질, 철학, 가치관 등을 정확하게 알아내어 그 사람의 본질을 분별해 내는 것과, 이를 통해 상대방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헤아려 너그럽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의 이해는 다음 단계의 배려와 엄밀한 구분이 어려우므로 이해 단계에서는 그 의미를 상대방의 본질을 파악하고 분별하거나 해석하기 위한 과정으로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해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측면과 공감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정원, 신철균, 2014). 인지적 측면에서의 이해는 상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알고 있는 정도이며, 공감적 측면에서의 이해는 상대방의 사적인 세계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지각하는 것이다. 즉, 이해는 관심 있는 상대와 소통하면서 혹은 상대를 경험하면서 얻은 그 사람과 관련된 지식을 통해 상대의 본질에 보다 더 가깝게 파악하고,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깊이 있게 공감하는 것이다. 한편, 이해와 이전 단계인 소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소통의 목적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함이기도 하면서 이해하는 대상과는 소통이 용이하기에, 상호 토대가 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과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며, 소통할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적 표현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들이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에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소통한다면, 상대가 의도한 메시지와는 다르게 해석하여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러한 오해는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소통 또는 개인적 지각을 통해 알게 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의 개념을 학교조직에 적용해보면, 교사가 학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소통과 관찰을 통하여 학생이 처한 다차원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윤여각 외, 2002). 즉, 교장이 교사에게, 교사가 교사에게 혹은 교사가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내어 관찰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해 단계는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는 초석이 된다.

#### 4. 배려(Consideration)

배려의 사전적 의미는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씀” (표준국어대사전)으로, 한자어(配慮: 짝 배, 생각하다 려)의 뜻을 풀어보면,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염려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배려는 상대방이 있음을 전제하고 사용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배려는 상호성(reciprocity)이 중시되며, 배려를 받는 사람 편에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배려자의 행위는 배려가 아니다(Noddings, 1984). 내가 원해서 상대방의 관심과 상태를 살피지 않고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은 배려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에 대해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그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 비로소 배려가 성립된다. 다시 말하면, 배려는 상대방의 관점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배려를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Mayeroff, 1971)” 또는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히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보살피주는 실질적인 행동(Parker, 1971)”이라고 정의하며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관계에서 배려는 관계 속에서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하여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상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인지하고 느끼는 것에서 나아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단계이다.

배려는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의 덕목이다.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가 배려라는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면 인간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기가 어렵다. 이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필요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배려는 실천적 성격을 지니며, 인간관계가 발전되기 위해 상호 간의 존중이 수반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교육조직에 있어서,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교사를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며 학습에 몰두하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Gray, 1986; Noddings, 2002). 또한, 학생들의 지적인 발달과 정서적 안녕감을 느끼도록 하는 중요한 인지적, 정서적 학습환경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교사의 배려이므로(Webb et al., 1993), 교사의 배려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의 배려는 교사들의 직무만족과 헌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명희 외, 2011; 김현진 외, 2011; 김호정, 2003).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에게 공과 사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며 다그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교사의

상황을 헤아려주며 따뜻한 말과 표정을 건네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준다면 교장을 인간적으로 존중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훨씬 더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 5. 사랑(Charity)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매우 고차원적인 개념이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랑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먼저 사전적 요소를 살펴보면,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많다. “어떤 상대를 애뜻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관계나 사람”,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마음을 베푸는 일”,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 “하느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구원과 행복을 베푸는 일” 등이 사랑의 의미로 정의된다. 이 정의들은 공통점이 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염두하고 있고, 그(그것)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이 즐거운 상태, 즉 행복에 이른다는 점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인식적 측면을 살펴보면, 전주람(2014)은 남녀 대학생들의 ‘사랑의 정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남·여학생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내러티브는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즉 사랑은 ‘느끼는 것’으로서 자신이 즐거운 상태, 즉 행복감에 이르는 감정적 차원의 개념이다. 사랑은 감정적 차원의 개념으로서, 상대방을 기꺼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등 사람들의 일상적 감정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사랑은 다른 설명을 요할 것도 없이 인간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인간관계의 완성은 상호 간에 사랑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 때 사랑은 꼭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선후배 간에, 사제 간에도 사랑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상대방이 기대하고 원하는 행동을 하며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사랑이므로 사랑은 어떠한 인간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은 불가피하며, 사회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운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갈등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과 고통을 넘어서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인간관계의 최종 목표는 바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관심과 소통, 이해, 배려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을 아끼

고 소중히 여기며 그를 열렬히 좋아함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 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 사랑은 인간관계의 종착점이자 다시 또 다른 관심과 소통, 이해, 배려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다.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그것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사랑은 방법이 아니라 진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진정 남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배려하는 마음 그 자체인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심-소통-이해-배려-사랑이 형성되는 단계는 순환적인 특징을 지니기에, 사랑이라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교라는 교육조직에 적용해보면, 교장-교사, 교사-교사, 교사-학생 간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는 특히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교육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적이며(허병기, 2003), 인간적인 삶이란 곧 인간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행복한 삶을 말한다. 즉, 인간적인 삶으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인간관계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학교조직 내에서는 학생을 둘러싼 학교구성원들 모두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학교구성원들이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모두의 행복감이 증진될 수 있는 학교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IV. 5C를 적용한 학교 내 인간관계 고찰

###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5C를 타당화하는 작업으로서 교사-학생 간의 사랑하는 관계를 5C를 적용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선생 김봉두’ 라는 영화를 매개로 5C 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영화는 비록 허구이야기를 다루더라도 그 이야기는 현실에서 있을 법한 사건이나 내용을 다룬다. 즉 현실의 모습을 보다 극적으로 만든 것이 영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실에서 적절한 사례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삶을 반영하는 영화를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영화는 관찰하려는 대상인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생각이나 감정, 대사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관찰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실의 사례를 대신하여 영화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한편, 5C는 학교 내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기에 5C를 적용하여 설명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구성원이 서로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관계로까지 나아가는 서사적 흐름이 필요하다. ‘선생 김봉두’는 서울에서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사 김봉두가 학부모들의 ‘봉투’로 인해 오지의 시골분교로 발령나게 되고, 새로운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이야기이다. 첫 만남부터 이후 사랑하는 관계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 담겨 있어 ‘선생 김봉두’를 선택하였다. 즉, 5C 이론은 인간관계의 형성 단계(관심)부터 중착 단계(사랑)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는 틀이며, ‘선생 김봉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처음 만나 그들 간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까지 모두 다루고 있어 5C를 영화의 장면에 접목하여 설명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물론 배경이 시골분교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소규모 학생들과 학부모들과의 깊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김교사가 교사로서 스스로 성장해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생 김봉두’에 대한 분석은 서사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서사적 분석기법은 이야기의 플롯에 따라 기, 승, 전, 결의 흐름을 분석하는 기법이며, 배경과 등장인물의 관계 그리고 진행과정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김영찬, 천하나, 2011). 서사적 분석기법을 활용하기 전 연구진이 각자 영화를 감상하였다. 이후 함께 모여 기, 승, 전, 결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였다. 5C 이론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한 주요 장면들을 연구진이 함께 선정하였고, 주요 장면들에서 포착할 수 있는 관계의 양상과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기록하였다. 주요 장면들의 정확한 대사를 확인하기 위해 ‘선생 김봉두’의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으며, 여기에서는 5C에 해당하는 주요 장면들의 시나리오를 인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분석결과

### 가. 관심(Concern)

김교사는 서울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시골에 내려오게 된다. 첫 근무 날, 김교사는 전교생 5명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되고, 이 만남에서 받은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은 김교사의 내면을 조금씩 바꿔가는 계기가 된다.

# 23 시골분교 운동장.

단상에 올라서는 선생님. 잠시 후 어색한지 단상에서 내려오는 선생님. 달랑 다섯 명이 줄을 서서 히죽거리며 선생님을 바라보고 서 있다. 6학년 남옥, 5학년 소석, 애순, 3학년 남진, 1학년 성만. 그리고 아직 학교에 안 다니는지 여자 꼬맹이 한 명이 운동장 한켠에서

놓고 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이 안 서는 표정이다.

선생님: 반장!!

선생님의 호명에 다들 멍뚱멍뚱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는 아이들.

선생님: 반장 없어?

남진: 그런 거 없는데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지만 그럴 법도 하다는 표정으로 체념하더니 귀찮은 듯 그나마 낮이 익은 소식을 가리키는 선생님.

선생님: (소식을 가리키며) 니가 반장해.

관심은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준비를 한다고 하였다. 체육시간에 아이들끼리 축구를 하는 장면에서는 첫 날 반장을 시켜주었던 김교사에 대한 소식의 관심이 드러난다. 선생님과 친해지고 싶고, 또 선생님과 함께 축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소식은 김교사에게 함께 축구를 하자고 제안한다. 부끄러워하며 김교사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는 소식의 모습에 김교사는 함께 공을 차는 것으로 대응한다.

#### # 25 운동장

축구공을 따라 이리저리 몰려 다니는 아이들. 체육시간인지 튜리닝으로 갈아입은 선생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축구하는 애들을 바라보며 하릴없이 담배를 피고 있다. 발 밑에 수북하게 쌓인 담배꽂초들. 마치 마약 환자가 약발이 떨어진 듯 멍하니 운동장만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 이때 선생님 앞으로 굴러오는 축구공. 멀리서 달려와 공을 집어드는 소식, 쭈뼛대며..

소식: 선생님...축구 같이 하실래요? 전에 선생님은 같이 공 찼드렸는데요..

선생님: .....

말도 않고 가만히 소식을 보던 선생님. 일어나 소식이 들고 있는 공을 뺏더니 슬슬 드리블을 해 나간다. 와~~하며 좋아라 선생님에게 달려드는 아이들. 유유히 볼을 제끼며 달려가던 선생님. 멀찌감치 공을 뺏 차버린다.

산골에서 교직 생활을 하게 된 김교사는 이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항시 서울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극 초반에는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없으며 관심을 줄 생각도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첫 만남에서의 아이들의 순박함과 아이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점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후 장면들에서는 김교사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만학도인 최노인, 그리고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 점차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된다.

### 나. 소통(Communication)

김교사에게 글을 배우고 있는 최노인은 김교사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한다. 김교사는 어이가 없었으나 서운해하는 최노인의 모습에 가정방문을 가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최노인은 매우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 72 숙소

수돗가에서 물에 젖은 옷들을 빨래하는데 다가오는 최노인. 최노인 자기만 빼고 놀러간 것에 뼈졌는지 통명스럽게..

최노인: 나 , 언제 ...가도 되는가?

선생님: 네... (학생에게 하듯) 숙제 꼭 해주세요. 안 해오면 나머지 공분거 아시죠?

입을 삐죽이며 선생님을 흘겨보던 최노인, 무슨 생각이 났는지..

최노인: (부끄러운 듯) 저..근데..난 가정방문 같은 거 안 오나?

선생님: (어이가 없다) 어르신은 정식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매우 서운해하는 최노인. 선생님, 최노인의 표정을 보더니...안됐는지..

선생님: 알았어요. 오늘 저녁에 찾아뵙게요. 마침 담배도 떨어졌구..

최노인: (금방 희색이 돌며 어린애처럼) 알았어 그럼...저녁 먹지 말구 와.

처음 최노인과 김교사의 만남은 그리 좋지 못하였다. 최노인에게 담배를 사러 온 김교사는 외제담배를 사러왔다는 이유로 최노인에게 물벼락을 맞았다. 비록 첫 만남이 좋지는 못했지만, 이후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최노인과 김교사는 본인들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장면에서는 그 관심이 드러난다.

# 73 최노인 집(밤)

막 잡은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다리를 뜯어, 한입 베어무는 선생님. 최노인, 흐뭇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다.

선생님: 키하~~맛있네...기가 막힌데요?

최노인: 많이 먹어.

선생님: 어르신도 드세요?

최노인: 난..이빨이 아파서 됐어.

선생님: 어우..그래요? 이거 혼자 먹긴 많은데...

하며 자기 앞으로 냐비를 끌어당기는 선생님. 선생님의 눈치를 보던 최노인, 장롱에서 꾸글꾸글하고 빛 바랜 편지를 잔뜩 꺼낸다. 그 중에 하나를 집어 편지를 꺼내 선생님에게 내미는 최노인.

선생님: 이게 뭐예요?

최노인: 응..미국사는 손주놈이 편지 보내온 건데..뭔 말인지 모르겠는 게 있어서..

하며 편지지의 한 구절을 가리킨다. "...걸프렌드" 라고 적혀있는 부분. 흐뭇해서 다시 편지를 들고 읽어보는 최노인. 닭을 뜯다말고 뜨악해서 쳐다보는 선생님

선생님: 그럼 그 편지 3년전 거예요?

최노인: 응.

선생님: 그걸 지금 읽어요?

최노인: 응. 요즘 이거 읽는 재미에 밤새.

멍하니 최노인을 쳐다보는 선생님.

위의 장면은 최노인과 김교사가 함께 저녁을 먹다가 최노인이 글을 배우고자 한 이유를 김교사가 알게 되는 장면이다. 글을 읽지 못해 3년이 지난 편지를 지금에서야 읽는 모습은 김교사에게 꽤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제야 최노인이 왜 글을 배우려고 했는지를 알게 된다. 이 장면은 최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최노인을 이해하게 되는 김교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통에서 이해로 넘어가는 관계의 과정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다. 이해(Comprehension)

김교사는 소석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결석을 하자 가정 방문을 한다. 집에서 지각되는 정보와 주변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소석이 처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소석이 선생님께 돈을 드리고 싶어 한다는 마음, 그러나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 # 97 소석의 집

힘없이 소석의 집에 들어서는 선생님. 몸이 아픈 소석의 어머니가 보이고 마당 한켠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 이웃집 할머니가 선생님을 보고 일어난다.

할머니: 아이구...선상님 오셨드래요. ... 약초 캐다가 판다구 동네 어른들 따라서 아침 일찍 갔는데?

선생님: 애가 약초를 캐러 가요?

할머니: 아 ..돈 땀이지...지 엄마는 저렇지... 돈이 어디서 나와. 동네 사람들이 쌀하구 반찬은 갖다주는 데 무슨 돈이 필요한가봐. 어린 게 안됐지 쫓쫓...

소석을 이해하게 된 선생님은 소석이 이전에 준 편지를 읽기 시작한다. 이해를 함으로써 소통이 증대된 것이다. 한편 더 많은 소통은 더 많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상보적인 역할을 한다. 편지를 통한 소통을 함으로써 소석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음을 느끼고 지난 소석의 행동이 자신이 위한 행동이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 # 99 교무실(밤)

##### 소석의 편지를 보는 선생님

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너무 좋다. 그런데 며칠 안돼서 살이 마르신 것 같다. 엄마한테 맛있는 감자를 싸달라고 하고 싶지만 난 그러지 못한다. 대신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겠다.

##### 편지를 읽으며 우는 건지 웃는 건지 감정이 섞이는 선생님

소석의 사례와 같이 학교의 학생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 곳에 머무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를 인지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실천함으로써 선생님은 학생들과 배려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 라. 배려(Consideration)

김교사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 소통하며 이해하게 된 결과, 학생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들과 함께 어울려 놀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도시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을 접고 이 학교에 남아 학생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한다. 또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 때 혼자 쉬고 있었던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먼저 함께 놀자고 제안하며 학생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 102 교실.

선생님: 그동안 이 선생님을 괴롭히던 나쁜 놈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어젯밤 내가 그 악당 같은 놈을 아주 멋지게 해치웠다.

아이들: .....

선생님: (사직서를 꺼내며) 따라서 그놈이 써 논 이걸 이제 필요 없다.

하며 사직서를 북북 찢는 선생님.

선생님: (장난스레) 어떠냐? 멋있지 선생님?

아이들: (환하게 웃으며) 네~~.

선생님: (웃으며) 우리...나가서 비석치기 한판 할까?

아이들: (신나서) 네~~~.

관계는 혼자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마음을 쓰고 배려를 하는 만큼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교사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쓰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다. 김교사가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선생님의 슬픈 마음에 공감하고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먼 길을 찾아가 선생님에게 필요한 위로를 하고 힘이 돼주고자 노력하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 111 병원 영안실

검은 상복을 차려입은 선생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있다. 뉘 놓고 앉아 있는 선생님의 귀에 낮 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문득, 뒤돌아보니, 어느새 와서는 선생님 뒤편에 서있는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 예상치 못한 조문객들의 방문을 받고는 반가워하는 선생님

선생님: (반가워서) 이야~~ 특수리 오형제들... 니들 학교 안 지키고 여긴 왜 왔어?

아이들, 선생님의 반가워함에 기분좋은 미소를 지어 보인다.

선생님: (마을사람들에게) 아휴~ 바쁘신데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어요?

이 장: 아이고~~ 무슨 섭섭한 말씀이래요.. 선생님은 다 한 식군데요.

잠시, 감격에 겨워 말을 못 잇는 선생님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기꺼이 도와주고자 하며 배려를 실천하고 있다. 상대와 함께 관계를 맺음에 있어 상대방의 관점을 중심에 두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배려를 하면서 상대를 위해 자신이 희생한다거나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를 받은 상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행복함을 느끼는 모습은 이들의 관계가 다음 단계인 사랑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 마. 사랑(Charity)

김교사는 청림초등학교 산내분교 제54회 졸업식 및 폐교식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마지막 소회를 밝힌다. 사회의 기본적인 내용은 산내분교에서의 평생 못 잇을 학생들을 만난 시간이 자신에게 있어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또한, 자신이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을 가르쳤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하였다.

# 113 교실.

박수가 이어지고 단상에 서서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는 선생님.

선생님: 제가 선생이 된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짧은 시간이었지만...이 산내분교에 와서 보낸 시간이 저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지루해 했던 적도 있었지만요..

그 말에 모두 웃는 사람들과 아이들.

선생님: (겸연쩍게 웃으며) 누구 말을 인용하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암튼... 그 등

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이들을 보며) 여기 있는 이 다섯 명의 아이들은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선생님: (아이들을 한동안 바라보다 갑자기 목이 메이며) 제가 이 애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애들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한테 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앞으로 나이가 들어 어른이 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해맑은 마음을 간직하길 바라고 비록 이 학교는 없어지지만 어딜 가든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엔 항상 이 조그마한 산내분교로 등교하길 바란다. 이상.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아이들.

졸업식 및 폐교식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인 김교사를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측면에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관심과 마음에도 없는 청림초 산내분교에 처음 교사로 부임하여, 학생들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기꺼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학생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교사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는 갈등과 고통 등 여러 시행착오와 갈등의 상황이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와 과정이 있었기에 최종적으로 서로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자신과 상대방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경험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관심-소통-이해-배려-사랑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개선하는 것은 학교조직 내 비단 교사-학생 간의 관계를 떠나 모든 인간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학교 내 교사-학생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관계의 형성에 대한 시론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여러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본질적으로 인간 및 인간 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학교 내 인간관계 형성 과정으로서 관심-소통-이해-배려-사랑에 대해 시론적으로 논하였다. 또한, 학교 내 인간관계의 모습을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를 매개로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관계의 단절을 염려하고 갈망하는 본능을 지닌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될 수 없는, 즉 상호 간의 관계가 필연적인 존재이다. 인간관계는 상호 의존성이 전제된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서,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 바탕을 둔 사랑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하는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두고, 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에서 내면의 중심부를 향한 관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 과정은 관심(Concern), 소통(Communication), 이해(Comprehension), 배려(Consideration), 사랑(Charity)으로 구분·설명될 수 있으며, 이를 5C로 명명하고자 한다. 사랑은 관심과 소통, 이해, 배려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대방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그를 열렬히 좋아함으로써 내가 행복해 지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삶의 만족과 행복 증진을 위해 사랑하는 관계의 형성은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임이 분명하다.

5C를 ‘선생 김봉두’에 적용하여 학교 내 인간관계의 양상을 살펴 본 결과, 관심-소통-이해-배려-사랑의 단계가 영화의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 이는 5C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적절한 틀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실제 학교 내 관계 형성 사례가 아닌 영화를 활용한 점, 영화 내 교사-학생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타당화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내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과정을 시론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5C는 인간관계의 형성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인간관계로서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내 사랑하는 인간관계의 형성을 지향하여 학교조직이 바람직한 공동체적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제 학교 현장의 맥락 및 상황을 반영한 학교 내 인간관계를 살펴보는 연구, 인간관계의 다양한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색해보는 사후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참고문헌

- 김민조 (2012). 학교내 교원간 의사소통 네트워크 분석: S초등학교 사례. **열린교육연구**, 20(4), 65-87.
- 김봉수 (2017.10.02). 추석에도 혼자인 당신의 자녀, 혹시 은둔형 외톨이?.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0209431357766>에서 2018년 5월 21일 인출.
- 김세원 (2017). 진정성에 대한 탐구로서 ‘라헬 파른하겐’ 독해를 위한 길잡이. **한국여성철학**, 28, 121-150.
- 김영찬, 천하나 (2011). 영상(映像)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기법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1(3), 91-100.
- 김정원, 김기수, 정미경, 홍인기 (2012). 미래형 교사교육체제 구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2-03.
- 김정원, 신철균 (2014). 교사의 학생 이해 및 소통 수준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1(3), 129-149.
- 김정원, 신철균, 강인구, 김성수, 윤태호 (2013). 교사의 학생 이해 및 소통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 2013-08. 한국교육개발원.
- 김철 (2007). 부버(Buber)의 “나-너의 대화적 관계론”에 비추어 본 몬테소리(Montessori)의 “교육적 인간관계” 이론에 관한 고찰. **교육의이론과실천**, 12(1), 77-96.
- 김호정 (2003). 조직문화, 리더십, 조직효과성의 관계: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27(4), 103-123.
- 김호정 (2009). 갈등과 신뢰 및 조직효과성의 관계. **한국행정학보**, 43(1), 97-119.
- 김홍 (2016).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학생 간 인간관계 및 학생의 학교 생활스트레스 연구. **통합교육과정연구**, 10(1), 127-148.
- 남기영, 허우성, 김수중, 정연교, 최정식 (1988). **인간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류희숙 (2003). **아동이 지각한 교사 태도와 자기능력지각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박민진 외 (2017). 관계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민의 세대별 비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2), 1-30.
- 박정애 (2017). **Fromm의 사랑개념에 근거한 사랑척도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국

- 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 박희진, 황정원 (2015). 개인 및 대학특성이 대학생활을 통해 형성하는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 **한국교육**, 42(2), 109-139.
- 서종원 (2003). **학교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성유진 (2017.12.18.). 학부모 항의 대응 위해... 교사들 녹음하고 보험까지.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8/2017121800103.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8/2017121800103.html)에서 2018년 6월 14일 인출.
- 송혜숙 (2000). **초등학생의 담임교사에 대한 지각과 정의적 특성 및 학업 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신중식, 노종희 (2003). **교육지도성 및 인간관계론**. 한국교육행정학회 편. 서울: 하우.
- 신철균 (2007). 학교 내 교원 간 의사소통 네트워크 분석: A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 24(2), 337-362.
- 엄정효 (2018.03.20.). 동료 살해한 환경미화원에 구속영장 신청...범행 은폐위해 휴직계 위조하고 피해자 딸에 생활비까지 보내. **업다운뉴스**,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69>에서 2018년 5월 21일 인출.
- 예지은 외 (2013). **직장인의 행복에 관한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 유상영 (2018.09.16.). 초등생이 선생님을 폭행?...교권 침해 심각. **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374>에서 2018년 9월 20일 인출.
- 유연화 (2008). **학년과 성별에 따른 교사태도 지각의 차이 및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여각, 김안나, 나승일 (2002). **국민 기초교육 단계에서의 생애능력 형성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 RR 2002-19-1. 한국교육개발원.
- 윤정완 (2018). 프롬의 사랑론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48, 33-58.
- 윤정일 (1999). 학교교육 붕괴의 종합적 진단과 대책.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주관 토론회.
- 이미숙 (2001). **교사의 훈육유형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병진 (1998). **현장교사론**. 서울: 양서원.
- 이사야 (2018.05.16.). 촌지부담도 컸는데 스쿨미투까지...스승의날 없었으면.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9835&code=11131300&sid1=soc>에서 2018년 6월 14일 인출.
- 이상국 (1996). 조직내 기본적 인간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관계학보**, 1(1), 197-212.
- 이상철 (2007). 직장 내의 바람직한 인간관계 정립을 위한 직업윤리 연구, **한국윤리학회**,

66, 105-141.

- 이상호 (2007). 맹자의 인간관계론에 드러난 생태적 함의. **동양철학연구**, 51, 91-122.
- 이완재 (1992). **학교경영의 효과와 인간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태희 (2002). **교사-학생간의 인간관계와 학구적 자아개념 및 학습태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장지웅 (2013). **초등학교 전임교사의 적응과정에서 업무와 인간관계에 관한 질적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전주람 (2014). 남녀 대학생들의 ‘사랑의 정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1), 125-142.
- 정경섭 (2004). **학교 조직에서 교사의 인간관계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정혜경 (2008).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와 학생의 인간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조인숙, 신화경 (2014).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행복에 관한 연구. **2014 한국주거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6(1), 275-278.
- 조태진 (2018.05.22.). ‘교사 잡는’ 아동복지법, 논란이 뜨겁다. 이코노믹리뷰, <http://www.eco 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344>에서 2018년 6월 14일 인출.
- 주형철 (2006).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가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금오공과대학교.
- 지은림, 김성숙 (2004).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담임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비교.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20(2), 83-101.
- 최찬기, 박윤창 (2013). 신입사원의 대인관계능력이 직무수행도와 조직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28(5), 27-54.
- 허병기 (2003). 교육조직의 리더십: 교육력과 인간화를 지향하여. **교육행정학연구**, 21(1), 95-121.
- Buber, M. (1954). *I and Thou*. Translated by Ronald Gregory Smith. NY: Charls Scribner's Sons.
- Gazda, G. M. (1973). *Human relations development: A manual for educators*. Boston: Allyn & Bacon.
- Gray, M. A. (1986). *An interpretive analysis of elementary teachers conception of car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 Hoy, W., & Miskel, C. G. (2013).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 practice*.

- (9th ED.). N.Y.: Mcgraw-Hill. 오영재, 신현석, 양성관, 박종필, 가신현 역(2013). *교육행정 이론, 연구, 실제*.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Huston, T. L., & Levinger. G. (1978).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relationship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9, 115-156.
- Mayeroff, M. (1971). *On caring*. New York: Perennial Library.
- Noddings, N.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L. 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oddings, N. (1992).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ducation*. N. Y: Teachers College Press.
- Noddings, N. (2002). *Educating Moral People: A Caring Alternative to Character Education*. N. Y: Teachers College Press.
- Webb, J., Wilson, B., Corbett, D., & Mordecai, R. (1993). Understanding caring in context: Negotiation borders and barriers. *The Urban Review*, 25(1), 25-45.



